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요 12:36).

:

우리의 삶에는 최상의 상태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만일 이렇게 항상 최상의 상태에 있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들은 그 상태에 머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최상의 상태를 느끼지 못할 때, 목표로 삼고 살아갈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그 절정의 순간에 계시되었던 그 기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깨달음의 시간에 당신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그 감정들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영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상태였던지!”라고 말하며 우쭐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뭔가 하라고 보여주셨으면 “네, 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박차고 일어나서 몸에 박힌 게으름을 떨쳐버리십시오. 게으름은 언제나 최상의 상태를 그리워하기만 할 때 생깁니다. 우리는 최상의 상태에 이르렀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궂은’ 날에도 우리가 최상의 상태에서 보았던 비전에 따라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한번 좌절했다고 해서 동굴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다시 시도하십시오. 당신이 되돌아갈 다리를 불사르고 당신의 두 발로 일어나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당신이 내린 결정을 재고하지 말고 단지 그 결정이 최상의 빛에 거할 때 내린 결정인지만 확인하십시오.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요 12:36)

비전을 살아내기 위해

오늘 말씀도 챔버스의 신앙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그래서 당연하기도 하고 또 흥미롭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보면 어떤 ‘최상의 상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항상 최상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전 묵상에서도 챔버스는 ‘변화산 체험’에 대하여 여러 번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황홀한 체험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일상으로 내려오셨다고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최상의 영적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최상의 상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할 때는 그 때를 기억하며 그 기준에 이르도록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최상의 상태’란 늘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상태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높은 곳을 바라보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체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체험은 우리 신앙의 역동성을 가지는데 무척 중요합니다. 신앙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은 감정, 즉 ‘주님을 만나는 체험’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즉, 만남의 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관계성’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추구 해야 할 신앙생활인 것이죠.

챔버스가 늘 지적하며 주의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어떤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민감성’이 될 것입니다. 챔버스의 글을 보세요.

“깨달음의 시간에 당신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그 감정들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영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상태였던지!’라고 말하며 우쭐해하지 마십시오.”

위의 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영적 체험, 즉 깨달음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던 놀라운 순간이죠. 이것을 기억해야하는 이유는 평상시의 삶에서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잘못 생각해서 그런 영적 체험을 우쭐하게 여기면 금세 교만해집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 주신 영적 체험이 교만으로 인해 그 관계를 깰 수도 있다니 말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실천을 가로막는 적은 ‘제으름’이죠. 제으름이란 언제나 우리가 체험했던 최고의 순간을 ‘그리워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으름을 이기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상적인 ‘궂은’ 날에도 우리가 최상의 상태에서 보았던 비전에 따라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3월 26일 묵상에서 ‘비전’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100번 이상 사용한 중요한 단어라고 했던 말을 말입니다. 이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를 주지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는 변화산의 체험과 같은 비전을 받지만, 그 비전을 가지고 내려와 계곡을 지나는 것과 같은 순간을 지난다는 것을 잊지 말라! 다른 하나는 대부분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비전을 체험하지 못하고, 실제로 그 비전을 성취하지 못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우리는 영적으로 좋은 순간과 감정을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이전에 받았던 은혜와 감동을 기억하며 다시 은혜에 빠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경건하고 좋은 은혜의 감정이라도 이것을 느끼는데서 끝나는 것입니다. 루이스의 지적처럼 실천 없이 신앙생활의 감동만을 쫓아다니다가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결국 좋았던 느낌마저 잊어버리고 맙니다. 챔버스는 우리들에게 게으르지 말 것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당신이 되돌아갈 다리를 불사르고 당신의 두 발로 일어나 하나님께 헌신 하십시오. 당신이 내린 결정을 재고하지 말고 단지 그 결정이 최상의 빛에 거할 때 내린 결정인지만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제안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주님을 만났던 기억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말만하지 말고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르지 않는 방법은 최고의 때에 주셨던 그 비전을 매일 붙드는 것입니다. 비전을 붙드는 것이 비전을 성취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게으를 때 최상의 비전을 기억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비전이 당신을 끝까지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묵상 질문 혹시 당신에게서 조용히 사라져버린 비전이 있지는 않습니까?

묵상레시피 | 열왕기상 11:1-13 + 요한복음 12:36

성경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돌이켰다고 탄식합니다.

그들이 들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2, 10절)

솔로몬과 백성의 마음과 태도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2, 4, 6, 10절)

이는 어떤 행동들로 이어졌습니까? (3, 5-8절)

결국 솔로몬과 나라는 어떤 일을 겪게 되었습니까? (11-13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2절)

‘사랑하다’는 히브리어(다바크)는 ‘달라붙다, 집착하다, 애착을 가지다’라는 뜻으로 이방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이 매우 지극했음을 보여준다.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서 돌이켜 이방여인에게 푹 빠져버렸다.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4절)

본문은 나이를 언급하면서 젊은 시절에 성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던 솔로몬을 기억하게 만든다.